



CUSTOMS

[관세조사]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관세 리스크 본격화 전망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기업 관세 부담 현실화되나

미국이 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과잉생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기존 관세 정책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01조는 미국이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통상 압박 수단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기업에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DOMESTIC·INTERNATIONAL POLICY TRENDS

국내외 정책 동향

관세 리스크에 흔들리는 글로벌 전략...현대차의 시장 전략 재편, 이유는?

관세 인하의 대가는 투자...일본이 먼저 움직였다

영국 철강 관세 50% 인상 추진...FTA 흔드는 보호무역 신호일까

INSIGHTS

언론 속 대륜

한국경제TV 등 8곳



법무법인 대륜,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 가동...수출기업 전방위 지원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전이 가시화된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수출기업들의 선제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 한미 공동 TF'를 출범했습니다.

마이데일리



법무법인 대륜, 대형 로펌 '타호타'와 손잡고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확대

최근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 로펌들과 협력을 강화해온 법무법인 대륜이 중국의 대형 로펌 타호타(Tahota) 법률사무소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글로벌 종합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니S



정당한 규제 vs 과도한 압박... ISDS·301조 '쿠팡 사태'의 쟁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부 대응을 두고 미국 투자자들이 국제투자분쟁(ISDS)과 통상 보복(무역법 301조)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조사가 본질을 벗어난 '타깃 규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CONTACT

신종수

최고총괄변호사

T. 070-7510-1046

윤경원

최고총괄변호사

T. 070-5117-3709

원정연 (Richard, JungYeun WON)

외국변호사(미국)

T. 070-7510-1118

손동후 (DongHoo SOHN)

외국변호사(미국)

T. 070-5221-2387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관세사 자격취득)

T. 070-7510-2016

김대륜

관세전문위원(관세사 자격취득)

T. 070-5221-2505